
Mobility 족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 후 발생한 경골 골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울 보훈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 윤정로 · 김택선 · 이상준

기존의 인공 족관절을 보완한 다양한 인공 족관절 치환 기구가 등장함으로써 족관절 관절염의 치료로 족관절 고정술을 인공 족관절 치환술이 점점 대체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모델의 인공 족관절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3가지 모델의 인공 족관절이 사용 가능하다. 족관절 인공 치환술 후 발생하는 절개선 주위의 괴사를 포함하여 수술 중 내과 및 외과 골절, 부정 정렬, 및 추시 중의 스트레스성 골절 등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Depuy사의 Mobility[®]는 기존에 사용된 Newdeal사의 Hintegra[®]와 달리 경골 부위에 stem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경골 삽입물의 삽입을 위해 경골 전면에 일정한 모양의 홈(slot)을 만들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경골부위의 홈을 따라 비교적 적은 강도의 충격에도 경골 골절이 발생하여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 증례

남자 65세 환자로 우측 족관절의 관절염으로 Mobility 인공 족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약 4주간의 단하지 석고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술 후 4주째부터 체중부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족관절의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하였다. 술 후 8주째 전방 골편부위의 유합 소견이 관찰되어 체중 부하를 허용하였다. 술 후 10주경 울퉁불퉁한 길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우측 족관절 부위의 동통과 부종으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우측 경골 골절 소견이 관찰되어 잠김나사를 이용한 골절 부의 수술 후 6주에 골절부의 callus 소견이 관찰되었다.